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RE 특성화 교육으로 대학 브랜드 강화

추진 배경

지난 4년 동안 대학 재정을 연구와 시설에는 많이 투자하였으나, 교육에의 투자는 극히 저조합니다. 그 결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국공립대학교 평균의 86%,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평균의 91%에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교수의 수업 부담 증대와 교수/학생간 소통 부족으로 ‘취업률이 폭락(순수취업률 56.3%)’ 하고, 이것은 입시경쟁률 하락(2.8대1)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RE 특성화로 대학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률을 높이고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하겠습니다.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이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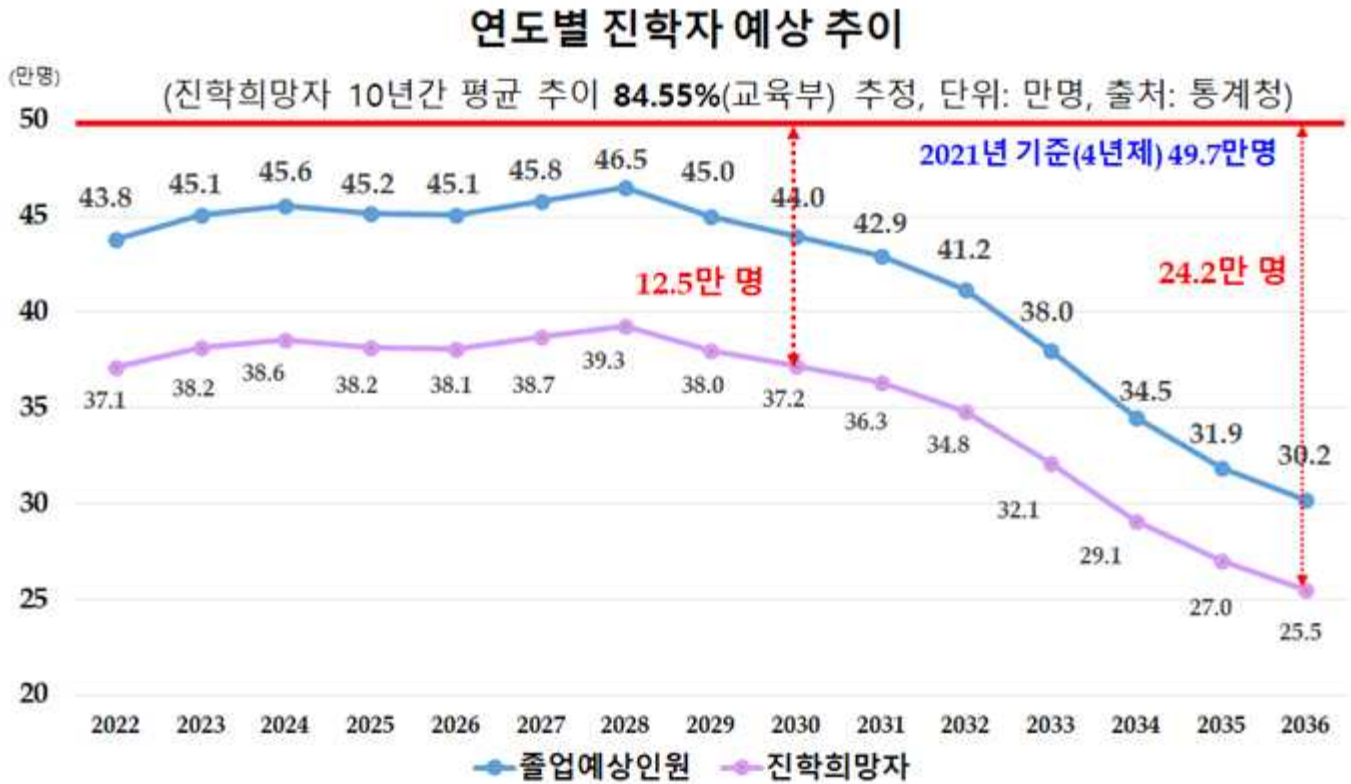
Best kit
Together kit
Strong 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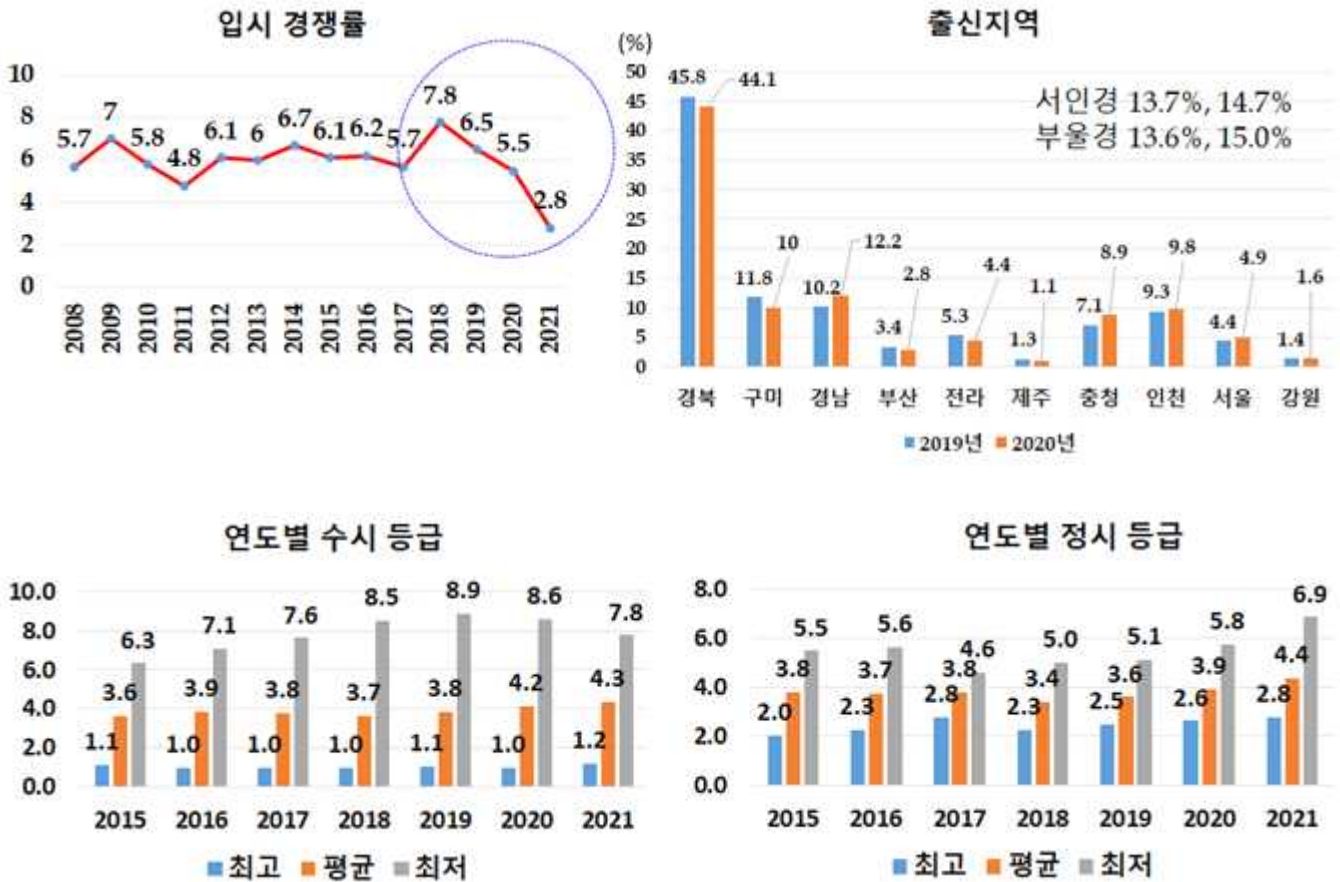
현황 (As I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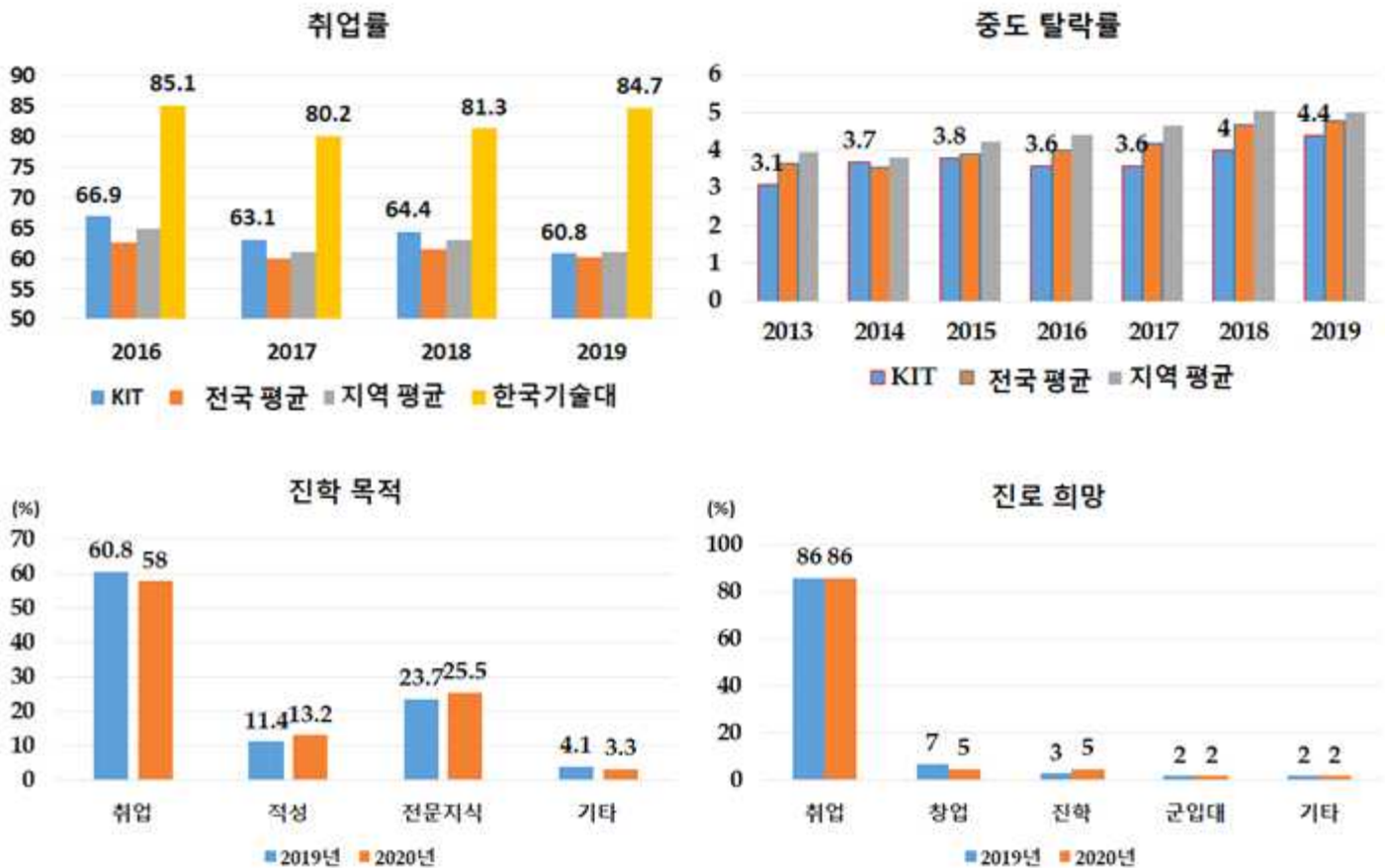
연도별 예상 학령인구 현황



- 2024년 대학 신입생이 11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전국 대학 입학 정원의 25% 정도를 채울 수 없는 상황)
-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24년 비수도권 대학(전문대 포함)의 34%가 충원률 70% 미만으로 추산.
- 2037년에는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인 지방대는 209곳으로 전체의 84%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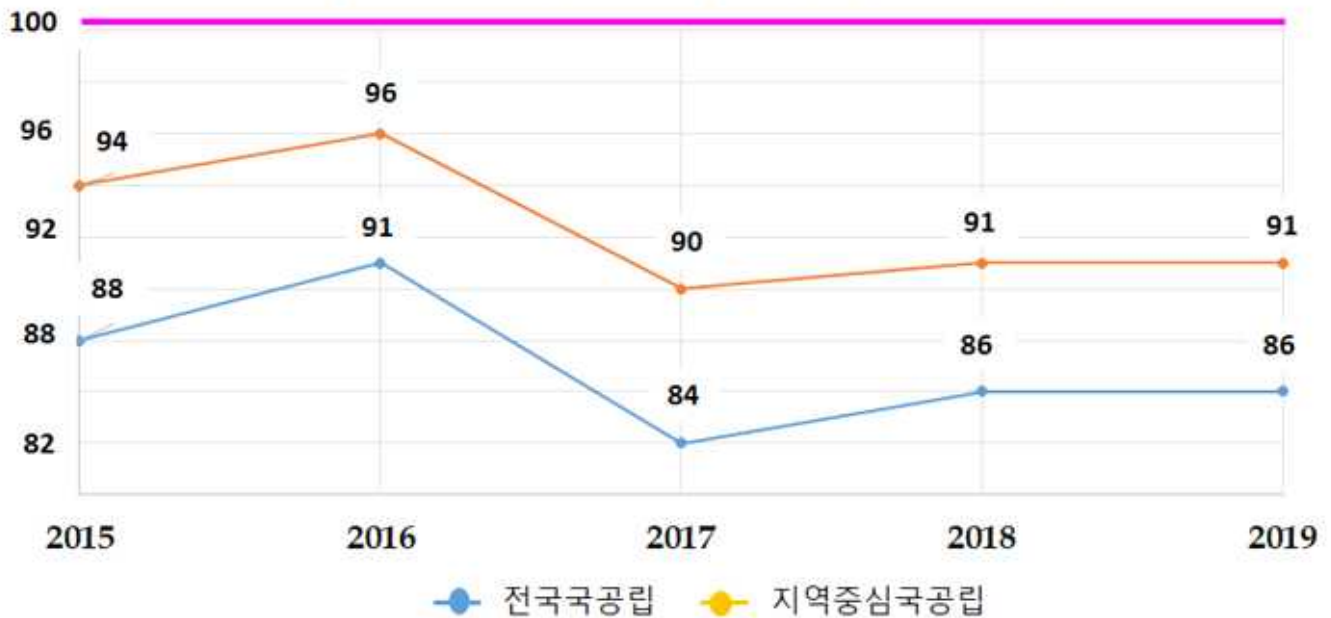


- 학령인구의 감소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입시 경쟁률이 계속하여 하락함
대책: 취업률 상승과 연동한 대학홍보 및 수험생 고려한 입시제 개선
- 수도권/경남권은 변화가 없으나 경북/대구권은 이전에 비해 15% 정도 감소
대책: 대구/경북권 수험생 유치 방안 모색
- 수시 및 정시 최고 등급은 큰 변화가 없으나, 최저 등급은 지속적으로 낮아짐



- 2019년 순수취업률(56.3%) 재정지원제한대학 최소 기준 56%
대책: 취업률 70% 달성 목표
- 2020년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11% 학생이 재수, 편입을 생각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취업률(43.4%)로 나타남
- 중도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타 대학으로 이탈 학생수:
2019년 79명/195명, 2020년 98명/184명
대책: 취업률 상승으로 중도 탈락률 개선
-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60% 학생이 취업 25% 학생이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우리대학을 선택했으나, 졸업 후의 희망은 대학원진학 4% 취업 86%로 나타남
대책: 취업 중심의 교육과 25%의 전문지식을 원하는 학생을 대학원으로 유도

국공립대학교 평균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20명 이하 강좌비율



전임교원 강의부담



- 전국 국공립대학/지역중심 국공립대학 평균에 못 미치는 교육 투자
- 20명 이하 소단위 강좌: 전남대 59.1%, 순천대 49.4%, 금오공대 30.6%
- 교육 투자비의 저조로 대단위 강좌의 비율이 높으며,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이 매우 높음
- 대책: 과감한 교육 투자로 교육의 내실화 구축, 전임교원 강의부담 절감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